

월간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I. 주요국 경제 동향	1
II. 국내 경제 동향	4
III.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7
IV. 국제자원시장 동향	10
V. 당행 주요 지원 산업 동향	12

확인 : 팀 장 이재우 (3779-6685)
 Jaewoolee@koreaexim.go.kr
작성 : 선임연구원 양종서 (3779-6679)
 flydon@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강정화 (6255-5327)
 nicekang@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김윤지 (3779-6677)
 yzkim@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성동원 (3779-6680)
 dwsung@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이미혜 (3779-6656)
 mihyelee@koreaexim.go.kr
조 사 역 나혜영 (6255-5709)
 nhy@koreaexim.go.kr

I. 주요국 경제 동향

1. 미국

□ 소비·고용 등 양호한 경기지표를 바탕으로 12월 기준금리 인상(1.00~1.25%→1.25~1.5%)

- (산업동향) 11월 산업생산 전월대비 **0.2% 증가**[10월:1.2%]하며 증가폭 둔화, 제조업지수*는 15개월 연속 기준선(50)을 상회하며 경기확장세 지속, 11월 소매 판매는 연말 쇼핑시즌, 수입물가 상승 등 영향으로 증가폭 확대[10월:0.5%→11월:0.8%]

*ISM 제조업지수(기준=50): ('17.8)58.8 → (9)60.8 → (10)58.7 → (11)58.2

- (수출입) 10월 수출 전년동기대비 **5.6% 증가**[9월:4.1%]한 **1,959억 달러**, 10월 수입 전년동기대비 **7.0% 증가**[9월:6.3%]한 **2,446억 달러** 기록하여 증가폭 확대
- (고용·물가) 11월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4.1%로 17년래('00.12월) 최저치 유지**, 11월 소비자물가는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여 전년동기대비 **2.2% 상승**하였으나, 10월 근원PCE물가지수 증가율은 1.4%로 여전히 낮은 수준

*근원PCE물가지수 증가율(% , 전년동월대비): ('17.7)1.4 → (8)1.3 → (9)1.4 → (10)1.4

2. 유로존

□ 견조한 성장세 지속,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17년:2.2%→2.4%, '18년:1.8%→2.3%)

- (산업동향) 10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증가 전환[9월:△0.5%→10월:0.2%], 11월 제조업 PMI*는 상승세 지속(81개월래 최고치), 10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감소 전환[9월:0.8%→10월:△1.1%]

*제조업 PMI(기준=50): ('17.8) 57.4 → (9) 58.1 → (10) 58.5 → (11) 60.1

- (수출입) 10월 수출 전년동기대비 **12.2% 증가**[9월:14.4%]한 **2,103억 달러**, 10월 수입 전년동기대비 **13.4% 증가**[9월:13.8%]한 **1,882억 달러** 기록하여 증가폭 축소
 - 유로화 기준으로는 10월 수출, 수입 각각 전년동기대비 5.6%, 6.7% 증가[9월:8.8%, 8.2%]
- (고용·물가) 10월 실업률은 전월대비 0.1%p 감소한 **8.8%로 '09.1월 이후 최저 수준**,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전년동기대비)로 여전히 낮은 수준**

3. 일본

□ 산업생산 증가 전환, 수출 호조 지속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 지속

- (산업동향) 10월 산업생산 전월대비 증가 전환[9월:△1.0%→10월:0.5%], 11월 제조업 PMI*는 15개월 연속 기준선(50)을 상회하며 경기확장세 유지, 10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감소 전환[9월:0.8%→10월:△0.1%]

*제조업 PMI(기준=50): ('17.8) 52.2 → (9) 52.9 → (10) 52.8 → (11) 53.6

- (수출입) 11월 수출 전년동기대비 **15.1% 증가**[10월:7.0%]한 **609억 달러**, 11월 수입 전년동기대비 **16.0% 증가**[10월:8.6%]한 **577억 달러** 기록하며 증가폭 확대
 - 엔화 기준으로는 11월 수출, 수입 각각 전년동기대비 13.5%, 14.4% 증가[10월:15.8%, 17.6%]
- (고용·물가) 10월 실업률은 5개월 연속 **2.8%**로 현저하게 낮은 수준,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0.2% 상승**[9월:0.7%]하여 低물가 지속
 - 10월 유효구인배율이 1.55배(구직자 100명당 155개의 일자리가 있다는 의미)를 기록하여 43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 특히 외식·운송업 등 서비스 업종에서는 구인난에 따른 임금상승 추세가 제품·서비스 가격에도 일부 반영

4. 중국

□ 소매판매 소폭 반등, 생산·투자 등 지표는 증가세 둔화 지속

- (산업동향) 11월 산업생산은 철강생산 감소 및 환경 규제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세 소폭 둔화[10월:6.2%→11월:6.1%], 11월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대비 **10.2% 증가**[10월:10.0%], 10월 제조업 PMI*는 16개월 연속 기준선(50) 상회

*제조업 PMI(기준=50): ('17.8) 51.7 → (9) 52.4 → (10) 51.6 → (11) 51.8

- (수출입) 11월 수출 전년동기대비 **12.3% 증가**[10월:6.8%]한 **2,174억 달러**, 11월 수입 전년동기대비 **17.7% 증가**[10월:17.2%]한 **1,772억 달러** 기록하여 증가폭 확대
- (물가)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전월대비 **0.2%p 하락한 1.7%** 기록

※ 중국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조사실업률”이 아닌 “등기실업률”을 발표(4% 내외), 실제 실업률과 상당 부분 차이가 있으므로 신뢰 가능한 지표 개발 전까지 고용 관련 내용 생략

〈참고〉 해외경제 주요 지표

(증감률, %)

구 분	‘15년	‘16년			‘17년						
		연간	3/4	4/4	1/4	2/4	3/4	9월	10월	11월	
미 국	GDP성장률(전기비)	2.9	1.5	0.7	0.4	0.3	0.8	0.8	-	-	-
	산업생산(전기비)	△0.7	△1.2	0.2	0.2	0.4	1.4	△0.2	0.3	1.2	0.2
	소매판매(전기비)	2.6	3.0	0.9	1.4	1.2	0.3	1.1	2.0	0.5	0.8
	수출(전년동기비)	△4.7	△2.5	△0.6	1.4	6.8	5.1	4.0	4.1	5.6	-
	수입(전년동기비)	△3.6	△1.9	△1.4	2.7	7.3	6.9	5.2	6.3	7.0	-
	실업률	5.3	4.9	4.9	4.7	4.7	4.4	4.3	4.2	4.1	4.1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1	1.3	1.1	1.8	2.6	1.9	2.0	2.2	2.0	2.2
유 로 지 역	GDP성장률(전기비)	2.1	1.8	0.4	0.6	0.6	0.7	0.6	-	-	-
	산업생산(전기비)	2.1	1.5	0.3	1.0	0.1	1.2	1.2	△0.5	0.2	-
	소매판매(전기비)	2.7	1.5	0.5	1.2	0.2	0.9	0.5	0.8	△1.1	-
	수출(전년동기비)	△12.4	0.2	1.2	2.1	4.0	7.8	13.5	14.4	12.2	-
	수입(전년동기비)	△14.5	△1.1	△0.4	2.5	7.4	11.7	15.1	13.8	13.4	-
	실업률	10.9	10.0	9.9	9.7	9.5	9.1	9.0	8.9	8.8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0	0.2	0.3	0.7	1.8	1.5	1.4	1.5	1.4	1.5
일 본	GDP성장률(전기비)	1.4	0.9	0.2	0.3	0.4	0.7	0.6	-	-	-
	산업생산(전기비)	△1.2	△0.2	1.6	1.9	0.2	2.1	0.4	△1.0	0.5	-
	소매판매(전기비)	△0.3	△0.7	0.5	1.5	△0.2	0.7	△0.1	0.8	△0.1	-
	수출(전년동기비)	△8.8	2.3	7.3	6.4	12.8	6.2	6.1	3.4	7.0	15.1
	수입(전년동기비)	△19.8	△6.5	△3.0	0.6	11.9	10.9	6.7	4.2	8.6	16.0
	실업률	3.4	3.1	3.0	3.1	2.9	2.9	2.8	2.8	2.8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8	△0.1	△0.5	0.3	0.3	0.4	0.6	0.7	0.2	-
중 국	GDP성장률(전기비)	6.9	6.7	1.8	1.7	1.4	1.8	1.7	-	-	-
	산업생산(전년동기비)	6.0	6.2	6.2	6.1	6.8	6.9	6.3	6.6	6.2	6.1
	소매판매(전년동기비)	10.7	10.4	10.5	10.6	10.9	10.8	10.3	10.3	10.0	10.2
	수출(전년동기비)	△3.0	△7.7	△7.0	△5.3	7.6	8.7	6.6	8.1	6.8	12.3
	수입(전년동기비)	△14.3	△5.5	△4.4	2.7	24.2	14.2	14.4	18.7	17.2	17.7
	실업률 ¹⁾	4.0	4.0	4.0	4.0	4.0	4.0	-	-	-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4	2.0	1.7	2.2	1.4	1.4	1.6	1.6	1.9	1.7

주 : 1)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실업률은 등기실업률로, 비농업호구·나이제한·노동능력 보유·실업 보험 납부기간 1년 이상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자로 등록이 가능

2) 최근 수치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자료 : Bloomberg,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Ⅱ. 국내 경제 동향

1. 산업활동 : 10월 긴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전월대비 6일) 영향으로 생산·소비·투자 등 지표 부진

□ (생산) 10월 전산업생산지수는 전월대비 $\Delta 1.5\%$ 감소 <전년동월대비 $\Delta 2.2\%$ 감소>

- 건설업(0.8%)에서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업($\Delta 1.7\%$), 광공업($\Delta 1.1\%$), 공공행정($\Delta 4.3\%$)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감소

□ (소비) 10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대비 $\Delta 2.9\%$ 감소 <전년동월대비 $\Delta 0.2\%$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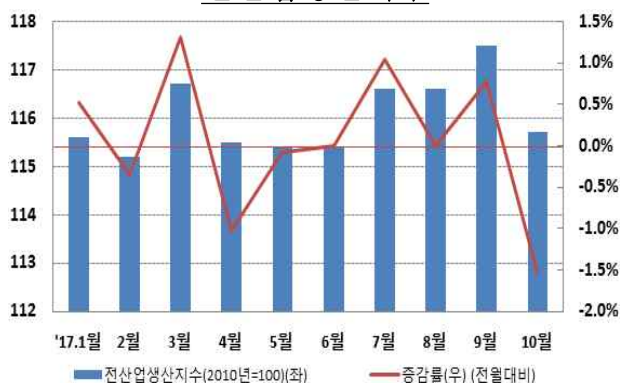
-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Delta 3.6\%$), 통신기기 등 내구재($\Delta 2.0\%$), 의복 등 준내구재($\Delta 2.1\%$) 판매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감소

□ (투자) 10월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Delta 14.4\%$ 감소 <전년동월대비 $\Delta 3.4\%$ 감소>,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대비 0.8% 증가 <전년동월대비 $\Delta 1.5\%$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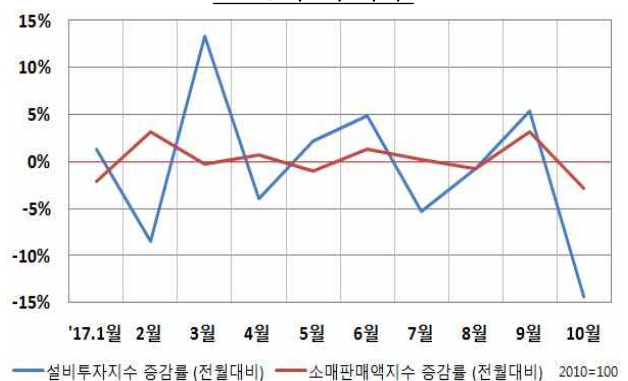
- 설비투자는 기계류 및 운송장비 투자가 줄어 전월대비 감소, 건설기성(불변)은 건축 실적은 감소하였으나 토목 공사 실적이 늘어 전월대비 증가

□ (경기) 10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4p 하락한 100.5,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p 하락한 101.3(2010=100)

전산업생산지수



소비·투자지수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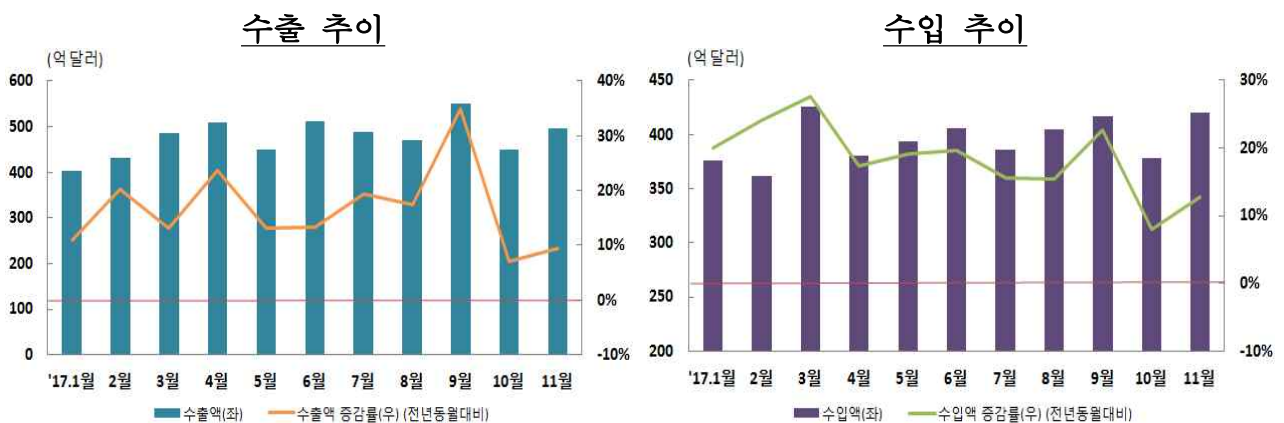
2. 수출입 현황

□ (수출) 11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9.5% 증가**[10월:7.2%]한 **496억 달러**로 증가폭 확대

- 반도체(68.5%)·철강제품(7.7%)·승용차(1.9%)·석유제품(39.1%) 등 증가, 무선통신기기(△10.8%)·자동차부품(△11.3%)·액정디바이스(△18.5%)·선박(△78.2%) 등 감소

□ (수입) 11월 수입 전년동월대비 **12.7% 증가**[10월:7.9%]한 **420억 달러**로 증가폭 확대

- 승용차·의류·가전제품·담배 등 소비재(11.4%), 원유·석유제품·석탄·의약품 등 원자재(12.5%), 반도체·기계류·제조용장비·정밀기기 등 자본재(13.7%) 모두 증가



3. 고용 및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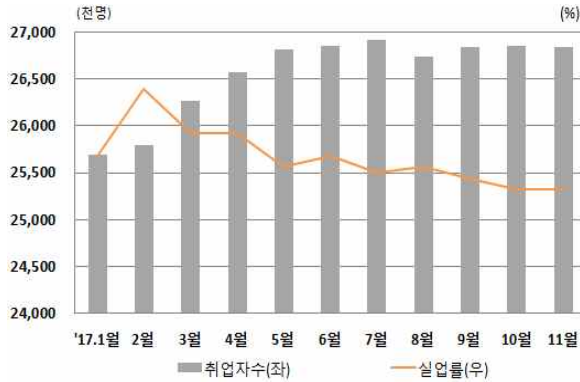
□ (고용) 취업자 증가폭 둔화, 청년실업난은 여전히 심각

- 11월 취업자는 **2,684만 5천명**, 고용률(OECD기준)은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한 67.0%**
 - (산업별)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증가,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감소
- 11월 실업자 **87만 4천명**,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11월 청년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1.0%p 상승한 9.2%**,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한 21.4%**로 각각 동월기준 최고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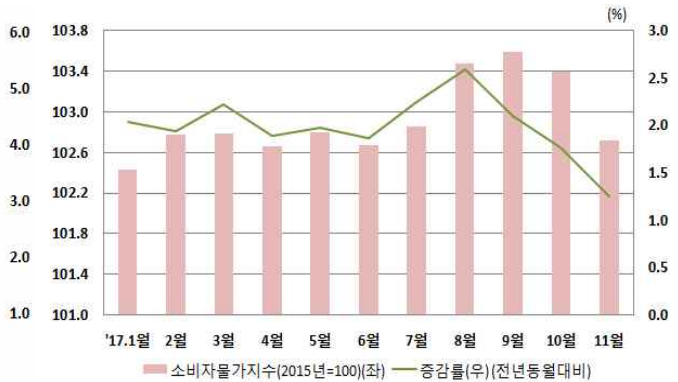
□ (물가) 11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3%**(전년동월대비)에 그쳐 연중 최저치 기록 <전월대비 △0.7% 하락>

- 오락·문화(△0.9%)를 제외한 교통(3.6%), 음식·숙박(2.6%), 기타상품 및 서비스(2.5%), 가정용품·가사서비스(1.7%) 등 11개 부문 모두 상승

고용 추이



소비자물가 추이



〈참고〉 국내경제 주요 지표

구 분	'15년	'16년			'17년					
		연간	3/4	4/4	1/4	2/4	3/4	9월	10월	11월
GDP성장률(전기비,%)	2.8	2.8	0.5	0.5	1.1	0.6	1.5	-	-	-
전산업생산지수 ¹⁾	-	-	113.9	114.3	115.8	115.4	116.9	117.5	115.7	-
증감률(전기비,%)	-	-	0.9	0.4	1.3	△0.3	1.3	0.8	△1.5	-
소매판매액지수 ¹⁾	-	-	118.6	121.1	120.5	122.0	123.4	125.6	122.0	-
증감률(전기비,%)	-	-	△1.2	2.1	△0.5	1.2	1.1	3.1	△2.9	-
설비투자지수 ¹⁾	-	-	108.4	117.1	123.7	129.2	128.7	132.8	113.7	-
증감률(전기비,%)	-	-	△1.9	8.0	5.6	4.4	△0.4	5.3	△14.4	-
수출액(억불) ²⁾	5,268	4,954	1,219	1,324	1,321	1,470	1,511	551	450	496
증감률(전년동기비,%)	△8.0	△5.9	△5.0	1.8	14.7	16.7	24.0	35.0	7.2	9.5
수입액(억불) ²⁾	4,365	4,062	1,025	1,106	1,164	1,179	1,208	417	378	420
증감률(전년동기비,%)	△16.9	△6.9	△5.1	4.1	24.0	18.7	17.9	22.6	7.9	12.7
실업률 ³⁾ (%)	3.6	3.7	3.6	3.2	4.3	3.9	3.5	3.4	3.2	3.2
소비자물가지수 ⁴⁾	100.0	101.0	101.0	101.5	102.7	102.7	103.3	103.6	103.4	102.7
증감률(전년동기비,%)	0.7	1.0	0.7	1.5	2.1	1.9	2.3	2.1	1.8	1.3

주 : 1) 계절조정지수(seasonally adjusted index, 2010년=100) 2)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수리일 기준

3) 원계열(original series)

4) 2015년=100

5) 최근 수치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자료 : 기획재정부, 관세청, 통계청

Ⅲ.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1. 금리 동향

□ 美단기금리는 금리 인상(12.13) 전후로 완만하게 상승, 美장기금리 또한 세제 개편안* 통과 기대감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며 상승, 장단기 금리 평탄화(커브 플랫닝) 우려도 전월대비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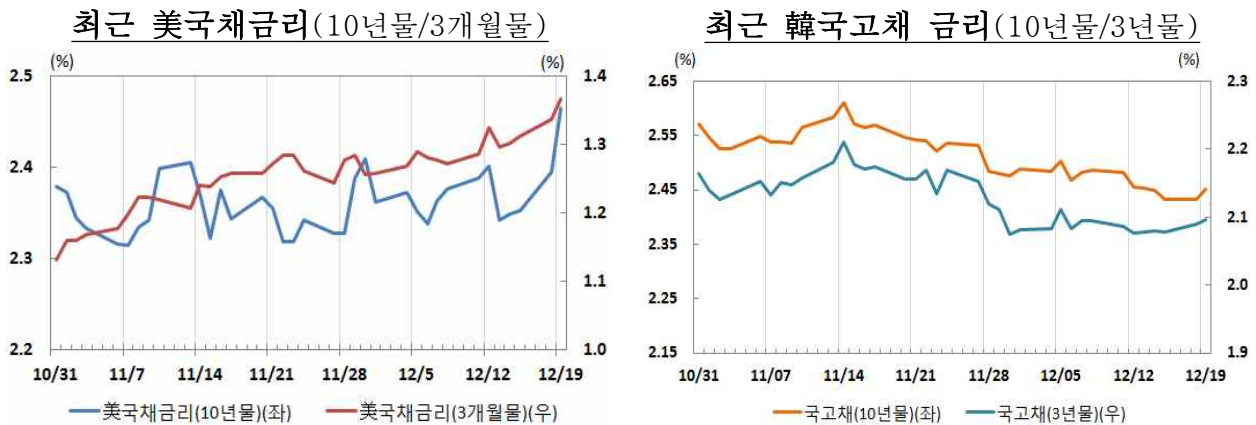
* 법인세 최고세율(35%→21%) 및 개인소득세 최고세율(39.6%→37%) 인하 등 향후 10년간 약 1조 5000억 달러 감세를 골자로 하는 31년 만의 최대 감세정책 (20일(현지시간) 기준, 美 상하원 통과 후 트럼프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은 상태)

- 美국채(3M,%): 1.159(11.1) → 1.259(12.1) → 1.287(12.11) → 1.366(12.19)

- 美국채(10Y,%): 2.372(11.1) → 2.362(12.1) → 2.389(12.11) → 2.464(12.19)

○ 국고채금리(韓)는 이미 기준금리 인상을 한 차례 이상 반영한 상태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금리인상(11.30) 발표 시 반대의견(조동철 금통위원)이 제시되는 등 근시일내 추가 인상 시그널이 미약하자 채권매수 분위기가 확산되며 하락

- 국고채(10년물,%): 2.547(11.1) → 2.489(12.1) → 2.482(12.11) → 2.451(12.19)



2. 환율 동향

□ (국제환율) 美 달러화는 세계개편안 관련 기대감 및 11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 호조* 등으로 강세, 이후 차익실현 매도세 영향 등으로 소폭 하락

* 11월 비농업부문 고용자가 22만 8천명 증가하여 시장전망치(20만 명) 상회

- 달러인덱스: 94.8(11.1) → 92.9(12.1) → 93.9(12.11) → 93.4(12.19)

○ 유로화는 세계개편안 통과를 앞둔 미 달러 강세 영향 등으로 월 중순까지 약세를 보였으나, 이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조정[‘17년:2.2%→2.4%, ‘18년:1.8%→2.3%] 되는 등 경제지표 호조로 소폭 상승

- 달러/유로: 1.162(11.1) → 1.190(12.1) → 1.177(12.11) → 1.184(12.19)

○ **엔화**는 특별한 방향성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미 달러화의 움직임에 따라 등락

- 엔/달러: 114.2(11.1) → 112.2(12.1) → 113.6(12.11) → 112.9(12.19)

□ **(원화환율)** 월초 저점인식에 따른 매수세 및 결제수요 등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경상수지 흑자, 수출업체 네고물량, 북한리스크 완화 등 영향으로 원화강세 지속

- 원화/달러: 1,114(11.1) → 1,086(12.1) → 1,092(12.11) → 1,085(12.19)

달러 지수



달러 환율(對원화, 對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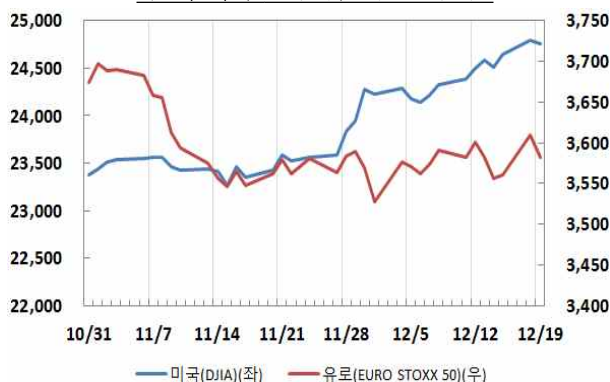


3. 주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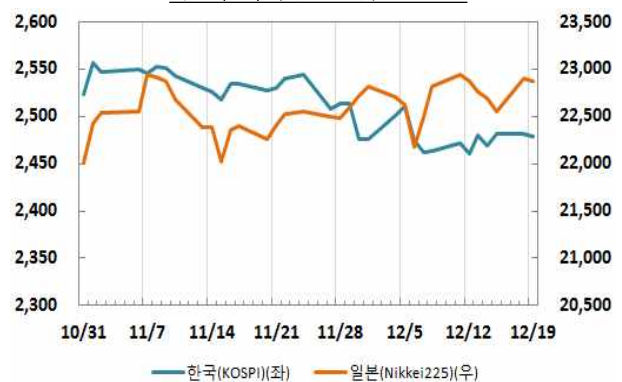
□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세제개편안 통과 기대감 등으로 상승, 코스피 지수는 IT주 중심 차익실현 등으로 외인 매도세가 집중되며 하락

구 분		‘17.11.1	‘17.12.1	‘17.12.19
미국	Dow Jones	23,435	24,232	24,755
유로	Euro Stoxx	3,697	3,528	3,582
한국	KOSPI	2,556	2,475	2,479
일본	Nikkei225	22,420	22,819	22,868

주가지수(미국, 유로지역)



주가지수(한국, 일본)



〈참고〉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기말 종가 기준)

구 분			‘15년	‘16년		‘17년					
				3/4	4/4	1/4	2/4	3/4	10월	11월	12.19
금리 (%)	정책	미국 FF금리 ¹⁾	0.25-0.50	0.50-0.75	0.75-1.00	1.00-1.25					1.25-1.50
		일본 IOER금리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유로존 금리	0.0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국제	미국 국채(3M) ²⁾	0.163	0.274	0.497	0.752	1.011	1.041	1.131	1.256	1.366
		미국 국채(10Y) ²⁾	2.269	1.594	2.444	2.387	2.304	2.334	2.379	2.410	2.464
		일본 국채(10Y) ³⁾	0.267	△0.084	0.043	0.067	0.086	0.062	0.071	0.040	0.036
	국내 ⁴⁾	국고채(3Y)	1.662	1.247	1.638	1.662	1.698	1.888	2.164	2.075	2.097
		국고채(10Y)	2.076	1.398	2.074	2.177	2.214	2.379	2.571	2.477	2.451
국제환율 ⁵⁾	¥ / U S \$		120.2	101.4	117.0	111.4	112.4	112.5	113.6	112.5	112.9
	U S \$ / €		1.086	1.124	1.052	1.065	1.143	1.181	1.165	1.190	1.184
원화환율 ⁵⁾	₩ / U S \$		1,175	1,101	1,206	1,118	1,144	1,145	1,120	1,088	1,085
	₩ / 1 0 0 ¥		977	1,087	1,031	1,004	1,019	1,018	985	967	961
주가 ⁵⁾	미국 Dow Jones		17,425	18,308	19,763	20,663	21,350	22,405	23,377	24,272	24,755
	일본 Nikkei225		19,034	16,450	19,114	18,909	20,033	20,356	22,012	22,725	22,868
	유로 Euro Stoxx		3,268	3,002	3,291	3,501	3,442	3,595	3,674	3,570	3,582
	코 스 피		1,961	2,044	2,026	2,160	2,392	2,394	2,523	2,476	2,479
	코 스 닉		682	681	631	619	669	653	694	771	766

주 : 1) ‘16년 12월 14일, ‘17년 3월 15일, ‘17년 6월 14일, ‘17년 12월 13일 각각 0.25bp 인상

2) 블룸버그 집계 (BGN,Bloomberg Generic Price) 미국 일반국채 수익률(3개월, 10년)

3) 일본 재무성, Japanese Government Bonds

4) 금융투자협회 최종호가수익률 기준

5) 블룸버그

자료 : 블룸버그, 일본 재무성, 금융투자협회

IV. 국제자원시장 동향

□ 유가 : OPEC 감산합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으로 강세 지속

- 10월 이후 유가가 급등하여 11월 초 배럴당 60달러대를 회복, 연중최고치 기록(\$62.39/bbl, 두바이유, 11.7일) 후 60달러선 지속
 - OPEC이 11월말 총회에서 2018년 말까지 감산연장 결정, 이미 감산 연장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어 추가적인 상승세는 약하나 배럴당 60달러선의 가격 강세 지속
 - 북해 Forties pipeline¹⁾ 가동중단에 따른 단기적인 공급차질 우려, 나이지리아 파업 이슈, 예멘 반군의 사우디 미사일 발사 등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 지지
 - 다만 여전히 증가하는 미 원유 생산량*은 추가적인 유가 상승 제한
- * EIA는 내년 1월 미 셰일원유 생산량을 전월대비 9.4만 b/d 증가한 641만 b/d로 추정

□ 천연가스 가격 : 미국 천연가스 재고 증가로 mmBtu당 2달러 중반대로 하락

- 미국 천연가스 재고량이 전주대비 20억 큐빅피트 증가하는 등(12.1 기준) 겨울철 성수기 시즌에도 불구하고 재고증가에 따른 수요둔화 우려감 확대로 10월 말 mmBtu당 3달러선의 가격이 하락하여, 12월 중순 2달러 중반대 기록

□ 연료탄 가격 : 글로벌 수급 타이트로 12월 중순 연중 최고치 기록

- 9월 중순 톤당 100달러대를 돌파한 이후 여름철 냉방수요 감소 등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글로벌 수급타이트 지속으로 12월 중순 100달러를 재돌파하며 연중 최고치 경신

□ 주요 광물자원 가격 : 전기동, 니켈은 소폭 상승한 반면 아연은 하락, 철광석 및 우라늄 가격 소폭 상승

- 전기동 가격은 중국 겨울철 구리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형광산* 파업 이슈에 따른 생산차질 등으로 12월 중순 소폭 상승

* 인도네시아 Grasberg 광산, 페루 Toquepala, Cuajone 광산, 칠레 Escondida, Quebrada Blanca 광산 등

- 니켈은 제강업체 재고 감소에 따라 수요가 반등한 반면 중국 환경규제에 따른 공급 감소, 필리핀 광업규제에 따른 생산 감소 전망 등으로 12월 들어 소폭 상승
- 아연 가격은 10월 초 연중 최고치 기록 이후 수요 둔화로 점진적인 가격 하락세

1) 45만 b/d 규모의 북해 원유를 스코틀랜드 Kinneil 터미널에 운반하는 Pipeline

- 철광석은 철강재 가격 회복에 따라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도 상승했으나, 중국 철강재 생산능력 감축, 미 달러화 가치 상승 등이 가격 상승폭 제한
- 우라늄은 글로벌 수요둔화 우려로 6월 초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파운드당 20달러선의 가격 약세가 지속되었으나 메이저 기업들의 대규모 감산 계획 발표 영향으로 20달러 중반대로 상승

주요 자원가격 추이

(기말 종가 기준)

구 분		2016년	2017년						연중 최고	연중 최저
			1/4	2/4	3/4	10월	11월	12.19		
유가 (\$/배럴)	Brent	56.82	52.83	48.77	56.79	60.94	62.63	63.8	64.69 (12.11.)	44.82 (6.21.)
	WTI	53.72	50.6	46.04	51.67	54.38	57.4	57.56	58.95 (11.24.)	42.53 (6.21.)
	Dubai	53.83	50.78	46.47	55.19	58.32	60.82	61.4	62.39 (11.7.)	43.50 (6.22.)
천연가스 (\$/백만BTU*)		3.724	3.190	3.035	3.007	2.896	3.025	2.69	3.424 (5.12.)	2.564 (2.21.)
연료탄(전력용) (\$/ton)		92.00	82.6	80.25	93.18	97.89	93.39	103.03	103.03 (12.15.)	73.15 (5.19.)
우라늄 (\$/lb)		20.4	23.25	20.5	20.25	20.05	23.25	24.00	26.75 (2.10.)	19.15 (6.5.)
철광석 (\$/ton)		78.87	80.39	64.95	62.05	58.52	68.13	73.93	94.86 (2.21.)	53.36 (6.13.)
전기동 (\$/ton)		5,501	5,849	5,908	6,485	6,831	6,793	6,845	7,074 (10.24.)	5,466 (5.8.)
니켈 (\$/ton)		10,035	9,875	9,280	10,585	11,850	11,295	11,690	12,830 (11.6.)	8,715 (6.2.)
아연 (\$/ton)		2,563	2,783	2,754	3,217	3,320	3,197	3,170	3,370 (10.4.)	2,436 (6.13.)

주 : 유가는 WTI유 선물 익월물/브렌트유 ICE 익월물/두바이유 현물가격, 천연가스/우라늄은 뉴욕상업거래소(NYMEX), 연료탄은 뉴캐슬 FOB, 철광석은 Fines 현물가격으로 중국 수입가 CFR, 전기동/니켈/아연은 런던금속거래소(LME), * BTU : British Thermal Unit
 자료 : 국제금융센터, KoreaPDS

EIA의 국제유가 전망

(단위: \$/bbl)

기준 유종	2016년	2017년				
	평균	1/4	2/4	3/4	4/4	평균
WTI	43.33	51.64	48.15	48.16	54.35	50.56
Brent	43.74	53.57	49.59	52.09	60.35	53.88

주 : 美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전망시기: 2017년 12월>, 회색부분이 전망치

V. 당행 주요 지원 산업 동향

□ 조선: 11월 수주는 크게 부진

- '17년 11월 기준 누적수주량은 전년동기대비 266% 증가한 574만CGT를 기록
 - 11월 수주량은 총 3척에 그쳐 극히 부진한 수준을 보였으나 전년동월에도 극히 부진하였던 양상을 보여 전년동월대비 수주량은 96% 증가
- '17년 11월 기준 누적수주액은 전년동기대비 335% 증가한 142.6억 달러를 기록
 - 11월 수주액은 전년동월대비 159.6% 증가한 3억 달러
- Clarkson의 11월 신조선 가격지수는 전월대비 0.15 point 상승한 124.55를 기록
- 11월에는 건조량 급감으로 전년동월대비 수출액이 △77%나 감소하였으나 누적 수출액은 금년도 해양플랜트 인도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24.2% 증가한 398.1억 달러

선박 수주 및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계	1/4	2/4	3/4	10월	11월
수주 실적	304.7 (△40.0)	463.3 (52.0)	329.4 (△28.9)	236.7 (△28.2)	46.1 (△80.9)	142.6 (334.8)	24.2 (416.5)	64.5 (407.0)	43.8 (396.1)	7.1 (31.3)	3.0 (159.6)
수출 실적	397.4 (△29.8)	371.7 (△6.5)	398.9 (7.3)	401.7 (0.7)	342.7 (△14.6)	398.1 (24.2)	69.8 (△12.2)	169.4 (60.1)	116.2 (55.8)	34.7 (35.9)	8.0 (△77.1)

주 : ()안은 전년 동월 혹은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Clarkson, 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 자원개발: IEA(국제에너지기구), 2018년 말까지 세계 석유공급과잉 지속 전망

- IEA는 지난 11월 말 OPEC 감산연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非OPEC 국가들의 증산에 힘입어 2018년 말까지 세계 석유시장의 공급과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세계 석유시장 공급과잉이 2018년 상반기까지 지속되다가, 하반기부터 점차적으로 수급균형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
- 세계 석유재고 수준이 여전히 과거 5년 평균치를 상회하는 등, 석유수급 재균형을 위해서는 OPEC의 성실한 감산 이행 뿐 아니라 견조한 석유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힘

- IEA는 2018년 세계 석유수요 전망치를 19만 b/d 하향조정 한 반면 미국 원유생산은 2017년 37만 b/d, 2018년에는 79만 b/d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 해외건설: 2017년 11월 수주액은 9.2억 달러로 전년대비 절반 수준

- 11월까지 누적수주액은 235억 달러로 전년과 비슷한 상황이며, 12월 20일까지 수주액은 272억 달러로 전년대비 8.4% 증가
- 12월 수주가 증가하고 있어, 올해 300억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으나, 과거대비 해외건설 수주는 부진한 상황
- 유가 상승 및 세계 경제성장으로 해외건설 수주환경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8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35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

해외건설 수주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계	1분기	2분기	3분기	10월	11월
수주실적	652 (0)	660 (1.2)	461 (△30.1)	282 (△38.8)	235 (0)	93.7 (△17.1)	69.4 (75.9)	50.1 (45.2)	12.7 (△55.9)	9.2 (△50)

주 : ()안은 전년 동월 혹은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해외건설협회

□ ICT: 11월 ICT 수출은 역대 2위²⁾ 실적 달성

- 11월 ICT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5.9% 증가한 186.2억 달러, 수입은 17.1% 증가한 94.8억 달러, 수지는 91.4억 달러 흑자를 달성
- 반도체(97.6억 달러, 전년동월대비 68.5%↑)는 메모리반도체(68.8억 달러, 97.7%↑)와 시스템반도체(22.5억 달러, 28.6%↑)의 수출 호조로 3개월 연속 90억 달러대 수출을 달성
- 디스플레이 패널(25.7억 달러, 전년동월대비 1.0%↑)은 LCD(13.8억 달러, 17.2%↓) 수출은 감소했으나 OLED(8.8억 달러, 50.0%↑)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13개월 연속 증가세 유지
- 휴대폰(19.3억 달러, 전년동월대비 21.3%↓)은 완제품 수출(8.0억 달러, 24.8%↑)은 호조세를 유지했으나 부품품 수출(11.4억 달러, 37.5%↓)은 감소세를 지속

2) 월간 ICT 수출액 1위는 '17년 9월 192.6억 달러

ICT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계	1/4	2/4	3/4	10월	11월
수출실적	1,726.8 (11.2)	1,762.3 (2.1)	1,728.8 (△1.9)	1,625.0 (△6.0)	1,798.8 (21.8)	440.0 (18.1)	468.3 (19.7)	524.4 (25.9)	180.1 (20.6)	186.2 (25.9)

주 : ()안은 전년 동월 혹은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태양광: 11월 모듈 수출액 1.98억 달러, 폴리실리콘 수출액 1.21억 달러

- 연초 75GW로 예상되었던 '17년 세계 태양광 시장규모는 90GW를 넘어설 전망
 - 30GW로 예상됐던 중국 태양광 설치량은 올해 50GW 넘어서 세계 태양광 수요를 주도하고 있음
- 2018년 세계 태양광시장은 100GW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 제2차 성장기 진입이 가능할 전망
 -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주목받았던 태양광 발전이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함에 따라 다시 한 번 폭발적인 수요 증가세가 예상됨
- 11월 모듈 수출이 20.7% 증가했으나, 폴리실리콘 수출액은 △9.7% 감소
 - 미국 셰이프가드 실시 전 미국 태양광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폴리실리콘 가격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 12월 수출은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

태양광 모듈 및 폴리실리콘 수출실적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계	1분기	2분기	3분기	10월	11월
태양전지 모듈	9.7 (7.4)	13.2 (△36.1)	18.9 (43.2)	14.9 (△6.9)	3.5 (△19.5)	4.2 (△19.0)	5.5 (12.7)	1.66 (7.0)	1.98 (20.7)
폴리실리콘/ 잉곳	13.1 (67.5)	12.7 (△3.6)	12.6 (△0.4)	10.0 (△1.9)	2.82 (△5.4)	2.75 (△25.5)	3.3 (27.4)	1.18 (21.6)	1.21 (△9.7)

주 : ()안은 전년 동월 혹은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무역협회

□ 중소기업: 추석 연휴 영향 10월 부진 · 11월 회복세

- ‘17년 10월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1.2%, 평균가동률은 1.4%p 하락
 -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추석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4.5일)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111.3) 대비로는 △11.2%, 전월(115.6)보다는 △14.5% 하락한 98.8 기록
 - 가동률은 ‘섬유제품’,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등 2개 업종에서만 상승하고,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목재 및 나무제품’ 등 20개 업종에서 하락해 전월(74.2%)대비 0.9%p, 전년동월(73.7%)대비로는 1.4%p 하락한 72.3%
- ‘17년 11월 중소기업 업황실적 SBHI(중소기업건강도지수)는 10월보다 6.3p 상승한 86.6
 - ※ SBHI(Small Business Health Index)는 중소기업 경기지수(실적기준)로 100이상이면 전월보다 호전, 100미만이면 전월보다 악화, 100이면 전월과 보합수준 (2010년 이후 최저치 74.3, 최고치 95.6)
 - 내수판매(78.7 → 84.9, 6.2p ↑), 자금사정(77.7 → 81.0, 3.3p ↑) 등은 상승했으며, 수출판매(89.0)는 전월과 동일 수준
- 중소기업대출(+3.7조원 → +4.9조원)은 연말 실적 평가에 대비한 은행들의 대출 확대 노력으로 증가폭 확대

중소기업 주요 업황 지수 추이

구 분	구 분 (단위)	2015년		2016년				2017년				
		3/4	4/4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생산지수	(2010년 =100)	104.3 (0.0)	110.7 (1.7)	102.0 (△2.0)	108.7 (0.1)	104.0 (△0.3)	115.2 (4.1)	107.3 (5.2)	111.3 (2.4)	109.1 (4.9)	98.8 (△11.2)	-
평균가동률	(%)	71.8	72.1	72.0	74.0	73.3	73.6	72.7	73.2	73.2	72.3	-
자금대출	(조원)	15.8	5.0	9.5	10.1	9.5	1.5	10.3	10.6	14.4	3.7	4.9
중소기업 건강도지수 (SBHI)	경기전반	80.8	84.2	78.1	86.6	83.7	81.1	77.9	84.2	84.5	80.3	86.6
	내수판매	80.2	84.3	78.1	85.9	83.1	81.9	77.2	83.7	83.6	78.7	84.9
	수출판매	80.6	80.4	77.6	86.7	86.0	84.9	86.8	87.9	88.8	89.0	89.0
	자금사정	79.7	81.2	77.0	82.8	81.5	79.0	75.5	79.2	80.1	77.7	81.0

- 주 : 1) 괄호 안은 전년동월·동기 대비 증감률
 2) 자금대출은 예금은행 원화대출(은행신탁 포함) 금액으로 기간 중 말잔 증감
 3) 중소기업 건강도지수는 2015.1월부터 중소기업 전산업으로 조사범위 확대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중소기업중앙회